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한 학술정보 공동이용 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Sharing System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of Academic Libraries in France

김 선 애(Sun-Ae Kim)*

초 록

본 연구는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도서관 특성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실시·운영되고 있는 CADIST의 도입배경, 역할, 운영방안 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기초학문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해 학술정보의 망라적 수집 및 학술자료의 효율적인 유통을 통한 공동이용에 있다. 전문화·세분화한 학술자료의 수집 및 공동이용은 대학 내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대학간 다양화·특성화·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대학도서관의 특성화·차별화 정책은 대학의 전문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BSTRACT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introduction background, the role and the functioning of the CADIST which is operated in France in order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characterization of academic libraries. The objective of this policy is to collect and to diffus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nd to establish its sharing system. The result of the policy shows that the sharing system is brought an activation of research and a discrimination or characterization of universities. And the discrimin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cademic libraries i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rea industry.

키워드: 대학도서관, 특성화, CADIST

Academic Libraries, Characterization, CADIST

* 덕성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sophie-kimsa@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4년 11월 15일 논문심사일자 2004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12월 20일

1. 서론

대학의 변화는 대학도서관의 서비스와 직결된다. 그리고 대학의 생존은 대학도서관의 운명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학의 변화는 대학도서관의 경영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학의 상황을 논할 때 흔히 '위기의 시대'라고 한다. 이는 대학 신입생수의 감소,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대학의 외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경직된 조직구조, 이용자들의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부족 등의 내부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학들의 변화노력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내용은 대학의 변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를 천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입정원을 향후 5년간(2009년까지) 15%(약 10만 명)를 감축하고,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강도 높은 '부실대학 퇴출' 방안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대학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몸집불리가 자칫 대학교육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쟁력 없는 국내대학들의 관행을 교육당국으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과 전문대는 그 동안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80%를 넘어섰고, 대학생은 36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질이다. 교

수 1인당 학생수는 사립대의 경우 35명으로 일반 중·고교와 다를 바가 없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지만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60개국 중 5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4. 10. 13). 최근 영국의 더 타임스 세계대학평가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도쿄대학이 12위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대학이 17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의 대학은 50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했다(중앙일보 2004. 10. 30). 이렇게 우리 대학들의 평가가 낮은 이유는 교원 대(對) 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많은 대학들이 특성화 정책은 포기하고 백화점식 종합대학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정원만 늘리고, 교육의 질은 형편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면 목표와 우리 대학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적합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미래 우리 대학이 지향해야 할 개혁의 방향은 첫째,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인재를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둘째,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학정원 규모는 축소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규준에 맞는 고등교육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넷째, 특성화·

전문화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역할 분담 등 특성화·전문화된 대학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균형 발전이 절실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 혁신체제(RIS)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등교육 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 특히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전문화된 대학교육에 최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전략적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이현청 2003).

결국,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교육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 및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은 구조 및 교육 여건에 대한 경영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고사되느냐 아니면 몸집을 줄이고 특성화 교육을 통해 살아남느냐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다. 방법은 대학마다 특성화된 교육분야를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가져갈 것은 강화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적극적인 자세만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각 대학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동아일보 2004. 10. 12).

대학이 가진 문제점은 고스란히 대학도서관의 현안과제로 되돌아 온다.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와 전문성 없는 자료로 소모적인 경쟁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특성화된 자료의 개발과 학술정보의 공동이용 협력시스템의 구

축을 통한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공동학술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산시스템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자료구매력의 감소, 자료저장공간의 협소 등은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체제 구축을 더욱더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의 경영 전략은 특정주제의 망라적 수집, 즉 자료의 특성화와 수집된 전문화·세분화된 자료의 효율적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간 공동이용 협력시스템의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료개발정책 및 정보서비스구조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방안과 더불어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학술정보 공동이용체제 사례로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실시되고 있는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정책의 운영사례를 통해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2. 대학도서관 특성화(CADIST)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2.1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일반 현황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공동이용체제를 소개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Annuaire des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¹⁾의 기초데이터를 통한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경영환경변화 및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은 1970년대 장서규모,

예산, 시설, 이용 등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을 전후한 시점이었다. 정부주도로 행해진 대학도서관에 대한 3차례의 현황조사 및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들²⁾은 대학도서관의 열악한 현황을 폭로함과 동시에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Vandevorde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즉,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학업과 교육에 기여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전문화·특성화된 연구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서 및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문화·특성화를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Vandevorde 1982).

1988년에 행해진 Miquel의 보고서는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개혁·혁신을 위한 다개년 계획이 여전히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Vandevorde 보고서의 발간 이후 대학당국과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프랑스 대학도서관은 여전히 선진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특히 Miquel은 대학도서관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학 및 국가차원의 연구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노력과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예산, 장서확충, 시설, 인력확보 등을 중심으로 다개년에 걸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10년 내에 350,000㎡ 건설하라, 전문직 직원을 15,000명 증원하라, 자료실 이용시간을 일주일에 최소 60시간은 제공하라,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라 등,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도서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Miquel의 보고서가 발간되고 10년 후,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정부 및 대학이 추진해온 정책적인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조사가 Lachenaud에 의해 1999년에 행해졌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 대학 및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및 노력이 대학도서관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을 위한 예산상의 지원노력이 두드러지는데, 지난 10년 동안 약 230%³⁾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

1) 대학도서관통계연보: 대학도서관 활동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표준화된 통계데이터이며 1974년부터 정기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데이터가 수집, 정리,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출판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료의 내용과 형태의 구성은 전국의 대학도서관장 및 관련행정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변화하는 대학도서관의 정보환경 및 활동에 발맞춰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대학도서관의 활동과 관련한 가장 완벽하고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도서관 수는 2002년 현재 100개관에 이르고 있다.

2) Vandevorde, Pierre, 1982. *Les bibliothèques en France: rapport au Premier Ministre établi en juillet 1981 par un groupe interministériel*,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Miquel, André, 1989. *Les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Rapport au ministre d'Etat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Lachenaud, Jean-Philippe, 1999.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Les temps des mutations*, Rapport du sénat no.59, Rapport d'information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Finances, du contrôle budgétaire et des comptes économiques de la Nation.

조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정부차원에서의 괄목한 만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은 여전히 이웃 선진국가인 특히, 독일 및 영국에 비해서 학생수에 따른 시설규모, 장서규모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1990년 이후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3년 동안의 괄목한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의 시설, 교육 및 연구환경은 학생수의 증가를 고려할 때 여전히 불충분하다. 표 1은 학생수를 고려한 지난 13년 동안의 대학도서관의 발전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도서관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규모를 보면, 1990년의 634,000m²

에서 2002년에는 929,701m²로 늘어났다. 대학도서관의 지속적인 신축, 증축 그리고 개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의 증가로 인하여 1인당 시설규모가 크게 향상된 수준은 아니다: 1990년의 경우 1인당 시설규모는 0.57m²이며 2002년에는 0.65m²이다. 반면 직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5%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에 3,135명이었던 전문직 직원의 수가 2002년에는 5,136명으로 2,001명이 늘어났다.

도서구입예산의 경우, 1990년 이후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일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도서구입예산은 1990년도의 188.43 프랑에서 2002년도의 324.11프랑으로 1.72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대학도서

(표 1)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일반 현황: 1990-2002

연도	학생수	시설	비율	직원수 (전문)	비율 ¹	자료 구입비	비율 ²	구입자료			
								도서	비율 ³	정간물	비율 ⁴
1990	1,115	634,000	0.56	3,135	2.80	210.10	188.43	405,360	2.75	76,455	14.58
1991	1,183	638,000	0.53	3,208	2.71	240.65	203.63	472,408	2.50	79,412	14.90
1992	1,238	652,000	0.52	3,332	2.69	261.16	209.76	559,718	2.21	84,974	14.57
1993	1,310	673,000	0.51	3,411	2.60	297.94	227.44	672,165	1.95	92,689	14.13
1994	1,414	688,000	0.49	3,542	2.50	331.74	234.61	732,716	1.93	98,662	14.33
1995	1,486	728,000	0.49	3,570	2.40	340.38	229.06	774,413	1.92	105,360	14.10
1996	1,472	762,000	0.52	3,706	2.51	375.88	253.81	862,947	1.71	108,082	13.62
1997	1,447	811,000	0.56	3,884	2.68	410.73	279.41	900,001	1.61	117,305	12.34
1998	1,427	846,000	0.59	4,062	2.85	447.56	309.72	948,419	1.50	122,714	11.63
1999	1,423	867,000	0.61	4,364	3.06	466.64	327.93	864,489	1.65	123,321	11.54
2000	1,430	893,200	0.62	4,528	3.17	463.22	323.93	887,357	1.61	123,683	11.56
2001	1,408	920,423	0.65	4,998	3.55	460.53	327.08	876,866	1.61	124,645	11.29
2002	1,429	929,701	0.65	5,136	3.59	463.16	324.11	888,911	1.61	123,935	11.53

출처: 『Annales des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1990-2002』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 1. 학생 1,000명당 전문직원 수
- 2.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 3. 구입 도서 1권당 학생수
- 4. 구독 정기간행물 1종당 학생수

3)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총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1992년의 800.9백만 프랑에서 2000년에는 1,841.3백만 프랑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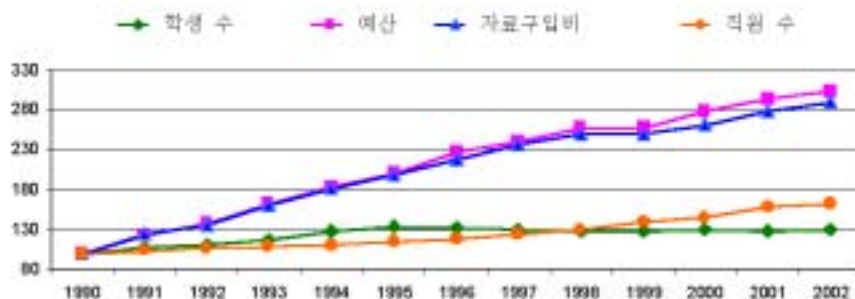
관의 열악한 장서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집 또한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1990년에 405,360권을 구입한 반면 2002년에는 888,911권을 구입함으로써 2.2배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입 정기간행물의 경우, 1990년에는 14,58명의 학생이 정기간행물 한 종을 공유했다면, 2000년도에는 11.53명의 학생이 한 종의 정기간행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림 1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학생 수, 예산, 자료구입비 및 직원 수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서관 직원 수는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직원 수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 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자료구입비는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3배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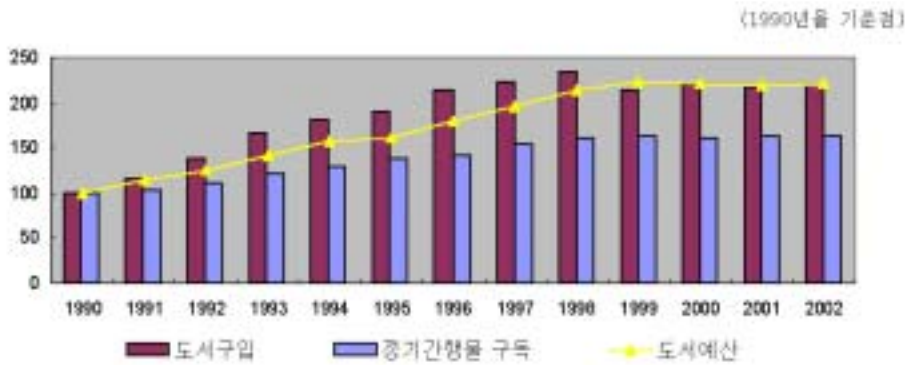
그림 2는 장서확충을 위한 1990-2002년 동안의 대학도서관의 자료 구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990-1992년 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1990-1996년 동안은 두 배의 강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1998년을 기준으로 상승

세가 주춤하고 있다. 도서구입예산 중 특히 정기간행물 구입지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의 정기간행물 구독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구독료의 지나친 인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자연과학분야의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평균적으로 30% 이상 상승했으며, 50% 이상 상승한 저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이용자수의 증가 추이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열람 및 대출은 지난 기간 동안 1990년의 10.3백만 건에서 2002년도의 15.87백만 건을 기록하면서 1.54배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대출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90년의 6.3백만 건에서 2000년 12.8백만 건으로 2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편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의 이용은 성장세가 지속되다가 1998년을 기준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감소 추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의 감소는 그 동안 대학도서관에서 지속적



(그림 1) 대학도서관의 학생수, 예산, 자료구입비 및 직원 수 추이: 1990-2002



(그림 2) 대학도서관의 자료 구입 현황: 1990-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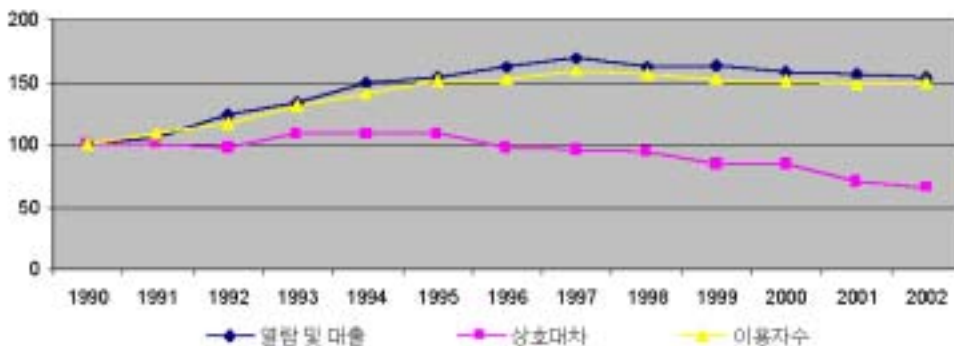
으로 추진해 온 자료확충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환경의 변화 및 전자저널의 등장 또한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그림 3).

1990년 이후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부와 대학은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학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 및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선진국가 특히, 영국 및 독일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의 후진성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이러한 뒤처짐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정부 및

대학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 2 CADIST 정책의 도입배경 및 목적

프랑스에서는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한 학술자료 공동이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 대학 및 국가차원에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정책은 대학,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의 정보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



(그림 3)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이용현황: 1990-2002

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화, 세분화된 자료의 망라적 수집을 통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는 민·관·대학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역산업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의 특성화·전문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에 도입된 특성화 정책인 CADIST(Centre d'acquisition et de diffusion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이하 CADIST) 정책의 도입배경, 법적 지위,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다양한 학문분야를 취급하며, 학생들은 그들의 학문분야 내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는 점점 더 세분화, 전문화 그리고 복잡해질 것이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는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 및 정보서비스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장서개발 측면에서 그리고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할 지라도 순수하게 자관의 자료와 자원만으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내에 여러 학문분야가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공동이용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대학 및 국가차원에서 기초학문분야를 비롯하여 학문의 유기적 발전

을 위한 전문화된 정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도입된 정책이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한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및 공동이용방안이다.

1980년대 초반 교육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의 수집, 배포 및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CADIST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의 도입은 프랑스에서 국가차원의 전문연구도서관간 학술정보 수집 및 공동이용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스템은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학문분야를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의 역사와 전통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대학에 주요학문분야에 관한 학술자료의 망라적 수집, 배포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현재, CADIST는 연구정보서비스차원에서 특정주제 분야에서 전문화된 도서관으로 명실상부한 대규모 학술정보 공동이용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대학 및 국가차원의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의 수집, 특히 외국자료의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집한 학술자료의 배포 및 이용은 도서관, 연구소 또는 정보센터 등을 매개로 하여 상호대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20여 개 주제 분야가 CADIST정책을 위임 받은 도서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표 2 참조).

2.3 CADIST의 법적 지위, 역할 및 운영

CADIST의 임무,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1992년 12월 31일자 시행령⁴⁾

4) CASIST 정책의 도입과 함께 1980년에 공포되었던 시행령이 1992년 교육부의 시행령 no. 92-378에 의해 대체되었다. La circulaire du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no. 92-378 du 31 décembre 1992: «Mission et

(표 2) CADIST 지정 대학도서관 및 주제분야

CADIST 지정 도서관	주제분야
AIX-MARSEILLE	ORIENT MEDITERRANEEN ET HISTOIRE COLONIALE FRANCAISE (동양사, 지중해사 및 프랑스 식민지사)
BAA	ART ET ARCHEOLOGIE (예술 및 고고학)
BDIC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MONDE CONTEMPORAIN (국제 관계 및 세계경제-20세기)
BORDEAUX 3	LLC* IBERIQUES - AMERIQUE LATINE ET AFRIQUE LUSOPHONE (이베리아,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언어, 문학 및 문명문화)
CAEN	HISTORIRE DU XIXe SIECLE (19세기 역사)
CUJAS	SCIENCES JURIDIQUES (법학)
FNSP	SCIENCES POLITIQUES (정치학)
GRENOBLE 2 & 3	LLC* ITALIENNES (이탈리아의 언어, 문학 및 문명문화)
INRP	SCIENCES DE L'EDUCATION (교육학)
MUSEE DE L'HOMME	ETHNOLOGIE ET PREHISTOIRE (민속학 및 선사학)
PARIS 8	GEOGRAPHIE - URBANISME (지리학-도시학)
PARIS 9	GESTION ET SCIENCES ECONOMIQUES (경영 및 경제학)
POITIERS	HOSTOIRE MEDIEVALE(IXe-XIIe SIECLE) (중세사: 9-12세기)
SORBONNE	GEOGRAPHIE / HISTOIRE MEDIEVALE ET MODERNE (지리학 / 중세사 및 현대사)
STRASBOURG BNU	LLC* GERMANIQUES / SCIENCES RELIGIEUSES (게르만의 언어, 문학 및 문명문화/ 종교학)
TOULOUSE 2	LLC* IBERIQUES - PENINSULE IBERIQUE (이베리아 및 이베리아 반도의 언어, 문학 및 문명문화)
BIU JUSSIEU	SCIENCES DE LA TERRE ET DES OCEANS (지질학 및 해양학)
BIU MEDECINE	MEDECINE ET ODONTOSTOMATOLOGIE (의학 및 구강치의학)
BIU PHARMACIE	COSMETOLOGIE (피부미용학)
GRONOBLE 1 - INPG	PHYSIQUE (물리학)
LYON 1	CHIMIE / PHARMACIE (화학, 생물/ 약학)
MUSEUM	BOTANIQUE, ZOOLOGIE, BIOLOGIE ANIMALE ET VEGETABLE (식물학, 동물학, 동물 및 식물 생물학)
OBSERVATOIRE	ASTRONOMIE ET ASTROPHYSIQUE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PARIS 11	MATHEMATIQUES (수학)

* LLC: Lingues, Litteratures et Civilisations(언어, 문학 및 문명문화)

에 의해 규정되었다. CADIST는 원칙적으로 대학도서관에 뿌리를 내렸으며, 연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 즉 학술자료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국가적 책임을 부여 받고 있다. 학술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CADIST는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면, 자료의 유형 및 언어에 관계없

이 망라적으로 자료를 수집·확충할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CADIST는 학술자료의 확충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장서개발 정책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계획을 고려하여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외국자료를 위주로 단행본,

fonctionnement des centres d'acquisition et de diffusion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CADIST)», *Bulletin officiel de l'Education nationale*, no. 1, 1993, p. 58-63.

정기간행물, CD-ROM, 비디오, 전자자료 등 연구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구입한다. 이러한 학술자료의 확충정책은 수집된 정보의 배포 역할, 즉 학술정보의 제공서비스 활동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완성된다. 배포한다는 것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련도서관이 원본, 복사, 팩스 또는 마이크로 형태로 요구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의미한다. 필요한 자료의 상호대차신청은 반드시 이용자가 소속되어있는 도서관, 예를 들면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정보자료센터, 연구소 내 자료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CADIST는 절차에 따라 수행된 정보요구내용에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CADIST는 회귀본 또는 보존이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행 저작권 및 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생산된 복사본을 제공하거나 또는 열람만을 제안한다. 상호대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CADIST 도서관들은 온라인 종합목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서관간 공동이용을 위한 온라인 종합목록으로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 Le CCN-PS와 Pancatalogue가 운영되고 있다⁵⁾.

Le CCN-PS(catalogue collectif national des publications en série): 연속간행물 온라인 종합목록으로 전분야를 망라한 프랑스 및 외국의 정기간행물을 조사·등록하고 있다. 2,800여 개 도서관 및 정보자료센터 망으로 구축되어있으며, 참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480,000여종의 정기간

행물을 제공하고 있다.

Pancatalogue(catalogue collectif des ouvrages français et étrangers): 전국 대학도서관의 단행본 온라인 종합목록으로 29,421,000여 권에 달하는 자료의 소장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 대학, 국가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의 질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정책인 CADIST는 주어진 임무와 역할 수행을 위한 혜택과 의무를 수여 받는다. CADIST로 지정된 대학도서관은 매년 국가에서 지급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금 외에 별도로 자료구입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이 특별지원금은 주어진 주제분야와 관련하여 연구·학술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및 기타자료의 구입에 전적으로 사용된다. CADIST 도서관은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관의 실질적 목적과 역할에 견주어 필요 불가결한 자료임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한편 CADIST 도서관은 특별지원금 총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회귀본 등의 재생산, 복사본 제작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CADIST 도서관은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내에 대학도서관 현황조사 및 통계자료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활동보고서는 보고 자료로서 특히, 특별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CADIST 정책과 관련된

5) 이외에 중요한 학술자료인 박사학위논문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Téléthèses가 있다. 이는 프랑스 대학에서 발간된 박사학위논문 온라인 종합목록으로, 인문학 및 자연과학분야는 1972년부터, 의학 분야는 1983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1986년부터 박사학위논문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매년 20,000여건 이상이 등록되고 있다.

기초통계자료를 제시해야 함과 동시에 관련 주제분야 내에서의 자료의 구입 비용의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활동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특별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특별지원금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료구입비용의 상승요인을 파악하여 예산반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대학도서관의 특성화(CADIST)를 통한 학술정보 수집현황 및 공동 이용실태

앞의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CADIST 도서관은 대학 내에서의 학문·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로서 학술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학술자료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학술자료의 수집측면에서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이용을 위한 제공측면에서 CADIST 도서관의 활동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자료수집현황을 보면, CADIST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료의 수집의 경우, 대학도서관들은 1980년 즉, CADSIT 정책이 도입될 당시 43,000권의 외국도서를 구입했었으나 2002년에는 187,782권의 외국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괄목한 성장(370%)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대학도서관 지원정책도 한 몫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CADIST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CADIST로 지정된 대학도서관은 전체 대학도서관이 수집한 자료증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은 1990년에서 2002년 동안의 대학도서관

(표 3) 대학도서관과 CADIST의 구입을 통한 자료 수집 현황: 1990-2002

연 도	도 서(권)			정기간행물(종)		
	대학도서관	CADIST	CADIST점유*	대학도서관	CADIST	CADIST점유**
1990	405,360	96,972	23.9%	76,455	28,977	37.9%
1991	472,408	126,133	26.7%	79,412	29,471	37.1%
1992	559,718	160,718	28.7%	84,974	35,831	42.2%
1993	672,165	180,844	26.9%	92,689	36,803	39.7%
1994	732,716	191,091	26.1%	98,662	39,583	40.1%
1995	774,413	226,992	29.3%	105,360	35,438	33.6%
1996	862,947	238,174	27.6%	108,082	35,369	32.7%
1997	900,001	248,816	27.7%	117,305	38,384	32.7%
1998	948,419	260,528	27.5%	122,714	39,474	32.6%
1999	864,489	253,241	29.3%	123,321	40,498	32.8%
2000	887,357	245,849	27.7%	123,683	53,532	43.3%
2001	876,866	233,134	26.6%	124,645	51,205	41.1%
2002	888,911	235,451	26.5%	123,935	48,217	38.9%
평 균			27.3%			37.3%

출처: Annales des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et des grands établissements 1990-2002.

* 대학도서관이 구입한 전체 도서에서 CADIST가 구입한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

** 대학도서관이 구독하는 전체 정기간행물에서 CADIST가 구독하는 정기간행물이 차지하는 비율

관과 CADIST의 구입을 통한 자료수집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CADIST는 2002년 235,451권을 구입하였으며 이는 전체 대학도서관이 구입한 도서(888,911권)의 26.5%에 해당한다. 평균적으로 CADIST는 대학도서관 장서확충의 2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경우, CADIST는 2002년 48,217종을 구독하였으며 이는 전체 대학도서관이 2002년도에 구독한 정기간행물 중 수(123,935)의 38.9%에 해당한다. 대학도서관의 전체 자료수집에서 CADIST가 차지하는 역할은 도서보다는 정기간행물에서 보다 두드러졌으며 평균 11.6%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CADIST의 자료개발 정책이 외국학술 저널 중심임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이들 도서관들은 학술자료수집을 위해 지원 받은 특별지원금을 전적으로 외국자료의 구입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구입자료 중 외국자료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9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CADIST의 자료확충정책은 양질의 학술자료의 망라적 수집을 통해 전체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의 망라적 수집을 통한 장서규모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자료, 고가자료 및 희귀 자료에 집중된 자료수집활동은 대학도서관 장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CADIST 정책의 도입효과는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부분에서도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1981년 481,649건이었던 도서관간 상호대차건수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2002년에는 755,943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CADIST가 상호대차서비스 신청에 있어서는 20% 미만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상호대차서비스 접수에 있어서는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 결과는 CADIST가 대학 내에서 상호대차서비

(표 4) 도서관간 상호대차 현황: 1981-2002

연도	상호대차 신청 건수			상호대차 접수 건수		
	전체	CADIST점유율	변화(%)	전체	CADIST점유율	변화(%)
1981	239,891	-		241,758	-	
1982	299,003	-	24.64	271,944	-	12.49
1988	459,784	-	53.77	490,994	-	80.55
1989	500,503	18.1%	8.86	556,711	53.8%	13.38
1990	543,010	17.9%	8.49	651,428	55.6%	17.01
1991	568,213	18.2%	4.64	664,574	53.2%	2.02
1992	571,387	18.5%	0.56	704,456	51.3%	6.00
1993	593,685	18.7%	3.90	723,538	52.4%	2.71
1996	537,181	18.9%	-9.52	664,646	49.7%	-8.14
1997	525,389	18.2%	-2.20	653,460	49.9%	-1.68
1998	515,632	19.3%	-1.86	650,895	48.3%	-0.39
1999	461,884	19.7%	-10.42	582,485	50.9%	-10.51
2000	466,451	20.4%	0.99	571,427	51.2%	-1.90
2001	399,700	19.7%	-14.31	464,421	51.4%	-18.73
2002	338,743	18.3%	-15.25	417,200	50.6%	-10.17
평균		18.3%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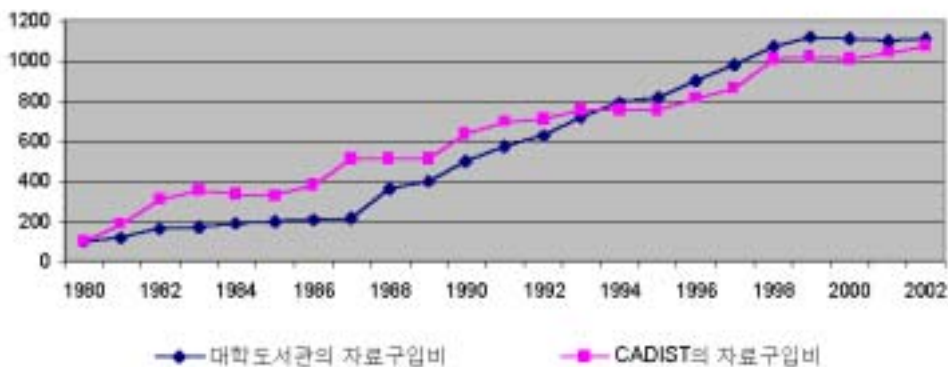
출처: Annales des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et des grands établissements 1981-2002.

스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02년의 경우, CADIST도서관은 50.6%에 해당하는 211,100여건의 상호대차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들 중 몇몇 기관은 1년에 40,000건에서 80,000건에 해당하는 상호대차 신청을 받고 있다. 도서관간 상호대차활동은 점점 더 몇몇 기관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대학도서관의 14%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전체 상호대차건수의 50%를 이용하며,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상호대차신청의 80%를 요청 받으며 그 중 대부분이 CADIST이다. 특히, 과학, 기술 및 의학분야 도서관이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전체 상호대차이용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적으로 상호대차 신청은 거의 90%에 달하며, 상호대차 접수는 7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호대차는 1980년대의 급속한 증가세를 기록한 후 1995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의한 대학도서관의 대폭적

인 장서확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CADIST가 학술자료의 수집 및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CADIST 정책 도입 후 자료수집을 위한 특별지원금은 10배를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 CADIST 정책도입초기부터 1992년까지 CADIST 도서관을 위한 자료구입비는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증가추이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며 강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1992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학도서관을 위한 자료구입비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Miquel의 보고서 발간 후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부와 대학의 대폭적인 지원정책의 결과이다. 1994년 이후부터는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증가세가 CADIST의 자료구입비 증가세를 추월하고 있다.

정부는 CADIST가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림 4) 대학도서관과 CADIST의 자료구입비 추이: 1980-2002

이들 도서관들은 대학도서관과 비교하여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CADIST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 운영이 대학, 지역 및 국가차원의 교육 및 연구의 질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 대학 및 지역단체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외에 인력 확충에 있어서 그리고 학술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정보기술환경의 첨단화, 선진화 계획에 있어서도 이들은 정부의 우선 지원 고려대상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술정보의 수집 및 공동이용을 위해 도입된 CADIST 정책은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도서관 차원에서는 자료의 장서개발 측면에서 학술자료의 망라적 수집을 통해 효과적인 정보서비스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도서관간 상호대차 활동은 학술자료의 신속하고 활발한 교류를 위한 온라인 종합목록, 정보망 등의 지속적인 지원, 보완 및 확충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특정 대학도서관의 특정 주제에 의한 전문화, 세분화는 대학 내에서 관련 주제분야 연구의 활성화로 가져왔다. 전문화·세분화 특성화된 학술자료를 매개로 한 정보교류 및 연구의 활성화는 대학의 특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이 지역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의 주축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는 지역산업의 특성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에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⁶⁾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4. 학술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국내 대학 도서관의 특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현재 국내 대학의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지식기반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대학은 규모를 축소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부분의 대학이 비슷한 성격과 규모를 가진 상태에서는 소모적 경쟁만 초래할 뿐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모기관인 대학이 가진 문제점은 그대로 대학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앞서 소개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가능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자료구매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자료저장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자료가공의 비효율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도서관들의 상황 타개책은 프랑스의 사례에서처럼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자료개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방안은 소

6) 산업클러스터란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 및 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산업집적체'를 의미한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면서 지역산업의 자생력확보를 위한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가 새로운 산업정책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유와 균형의 적절한 형태인 소유는 특성화하고 접근은 보편화하는 전략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이제환 2003). 세계 명문대와 비교한 국내 대학들의 학술정보인프라의 객관적인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서울대의 경우 도서, 전자저널 등 학술정보 보유량이 도쿄대의 7분의 1, 하버드 대학의 10의 1 수준이다. 국내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객관적 수치를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한편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력을 통한 전문화된 학술정보자료의 분담 수집 및 학술자료의 효율적 유통 및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술정보개발 및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은 학술정보 인프라가 취약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영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은 학술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할애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도서관 학술자료 유통체제는 대학도서관으로 구성된 연합체 또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도서관들 간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학술정보의 공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대차, 복사 서비스, 도서관 상호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소극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정보유통체제는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첨단학술정보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간 학술정보 유통을 공유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교육방송원(EBS) 부설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와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 첨단학술정보센터가 통합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학술정보유통과 관련하여 학술연구정보화 사업으로 대학도서관

을 기반으로 전국에 존재하는 각종 학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술정보를 국가 자원으로 보존 유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도서관의 종합도서목록 DB와 서지목록 DB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학술정보를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전자정보 공동활용 체제 고도화를 통한 연구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 합리적 방법으로 해외전자정보를 유통하여 구매 비용 절감 및 이용가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해외 학술 정보를 직접 구매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내외의 각종 학술정보를 수집하여 디지털 DB를 구축함으로써 전 분야의 학술정보에 대한 종합정보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 11월 현재 전국 대학도서관이 구축한 640만 건의 서지데이터와 2,860만건의 소장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학술연구기관의 자원공유체제 정착을 위해, 분담수서를 유도하여 국내 학술정보의 범위 확대를 위해, 그리고 학술연구자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체제 구축을 위해 1999년부터 참여협정기관간 자료공동이용협약을 위한 상호대차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학술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즉 네트워크의 구축, 전국대학 온라인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서비스제도의 정착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다음 과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간 차별화된, 특성화된 학술정보자료의 개발이다. 전문화, 차별화된 자료의 수집을 통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정책을 국내 대학도서관에 도입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학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학술정보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이들 자료개발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가자원으로 보존, 유통시킬 수 있는 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문화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대학의 특성화 정책과 연계한 대학도서관 차별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우선 대상으로 국립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제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학술자료의 개발은 단기간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장기적 차원에서 꾸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국립대 대학도서관은 장기적인 국가 지원정책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또한 갖고 있다. 현재 지방 국립대들은 대학의 구조개혁방안으로 연구분야 및 기능분화를 중심으로 대학간 통합을 논의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지방대학의 살길은 선택과 집중이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

리고 가지고 갈 것은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 지방대학의 중점 육성분야의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지역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못지 않게 지방화의 목표 또한 대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특정 대학이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자료의 개발 및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면 이 대학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주제분야의 선정은 대학의 역사와 전통, 학문적 특성 및 인접한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산업대, 교대를 포함하여 43개 국립대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크게 대규모 일반대, 소규모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개발을 위한 주제분야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산업의 특성 및 효율적 분배를 고려하여 전국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등의 권역으로 나누어 대규모 일반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대규모 일반대를 중심으로 소규모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등이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학술정보자료의 효율적 유통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활발한 정보교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대학이 갖는 학문의 전통, 특성 및 대학이 추

구하는 정책을 고려하여 그리고 이미 구축된 학술정보인프라의 전통, 역사 및 특징을 고려하여 시립대를 중심으로 중점 학술자료개발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이 논의 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연구분야와 대학이 갖는 학문적 특성의 차별성과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리고 기존 구축된 학술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개발 학술주제분야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주제분야와 연계한 학술정보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및 대학간 공동이용을 통한 학술자료의 효율적 유통은 대학도서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과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전문화·차별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1세기 대학도서관은 전략화의 추진 없이는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략적 방안으로의 대학도서관개혁정책은 대학의 설립목적과 역사 그리고 학문분야의 분포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와 기능분화 및 다양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대학도서관의 다양화와 특성화는 대학개혁의 전략과 일치하므로 장서개발정책, 규모, 운영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재구조화의 방안으로 특성화 정책이 제시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프랑스의 학술정보 공동이용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CADIST정책에 대해 살

펴보았다.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된 이 정책은 정부 및 대학의 지원에 의한 대학의 역사, 정책,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한 특정주제에 의한 대학도서관 특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대학도서관의 보편화보다는 특성화를 강조하였으며,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학술정보 공동서비스시스템운영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프랑스의 대학 내에서 이 정책이 끼친 영향은 먼저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특성화를 기반으로 차별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발전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국가, 대학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연구활동에 대한 학술지원활동을 대학도서관이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확대·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정한 주제의 학술자료가 집중적으로 소장된 곳에 우수한 인력 및 연구소가 집중됨으로써 산·학·연 협동체제에 의한 지역산업의 특성화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이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현재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는 차별화, 특성화 정책, 즉 선택과 집중은 대학도서관에도 필요한 정책이다. 학문주제별 기본 장서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우리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구입대상이 되는 학술정보자료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의 생존전략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내 대학도서관간 네트워크의 확산은 학술자료 공동이용

을 위한 발판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보다 집중해야 할 경영전략은 학술자료개발정책방안이다. 모 기관인 대학의 특성에 기초한 전문화된 자료의 개발 그리고 타 대학도서관과 차별화된 학술자료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대학과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해서 기초학문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성화와 연계한 대학도서관의 전문화·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에서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정부차원에서 시행된 CADIST 정책은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특성화된 학술자료개발방안, 이를 통한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전략, 특성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전문화·세분화·차별화 전략 그리고 전문화·차별화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정책은, 현재 국내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동아일보』. 2004. 교육부, 27개 대에 600억 지원: '문어발' 대학은 버리고 '한우물' 대학만 키운다. 9월 18일 사회.
- 『동아일보』. 2004. 지방사립대 사활 건 몸짱만 들기. 10월 12일 사회.
- 『조선일보』. 2004. "살려면 손잡자"대학들, 통합 논의 가속도. 9월 23일 사회.
- 『조선일보』. 2004. [시론] 대학 통합과 혁신: 턱없이 적은 연구비 지원 지방대에 지원 늘려야. 10월 13일 오피니언/인물.
- 『조선일보』. 2004. 한국대학 세계순위 높이면: 대학 예산·교수 숫자 늘리고 학생 수는 줄여야. 12월 4일 특집.
- 『중앙일보』. 2004. 대학투자재원 위해 등록금 자율화 필요: 서울대 교수협의회 토론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10월 30일 종합.
- 『중앙일보』. 2004. 하버드 1위, 도쿄대 12위: 더 타임스 '세계50대 대학' ... 한국대학은 없어. 11월 5일 사회
- 이용재. 2002. 『주제화를 통해 본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제환. 2003.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정보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현청. 2003. 제1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고등교육 환경변화와 대학 구조 조정 전략. 『대학교육』. 126호(11/12월호).
- 정동열. 2002.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주제

- 전문화 역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5-23.
- 정재영, 남태우. 2004.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자료실 조직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73-19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대학학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동연구원. 연구보고 KR 2000-6.
- Kim, Sun Ae. 2003. L'évaluation de l'efficience des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et leur effet sur le travail des étudiants à l'université. Ph.D. diss., Université Jean Moulin, Lyon.
- Lachenaud, Jean-Philippe, 1999.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Les temps des mutations. Paris: Sénat.
- Lapellerie, François. 1996. Le prêt entre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scientifiques existe-t-il? *Bulleti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41(3): 56-72.
- Ministère de la Jeuness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Recherche. 1992-2004. *Annuaire des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1990-2002: Résultats de l'enquête statistiques générale auprès des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1993. Mission et Fonctionnement des centres d'acquisition et de diffusion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CADIST). *Bulletin officiel de l'Education nationale*. No.1: 58-63.
- Miquel, André, 1989. Les bibliothèques universitaires: Rapport au ministre d'Etat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Vandevoorde, Pierre. 1982. Les bibliothèques en France: rapport au Premier Ministre établi en juillet 1981 par un groupe interministériel.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 Van Dooren, Bruno. 1992. Des bibliothèques de research au servic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Les CADIST Centres d'acquisition et de diffusion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КСІ